

50주년 37회 졸업 모교방문 글 모음

37회 졸업 50주년 모교방문기

37동기회장 조수호

친구야 반갑다 !

2019년 5월9일 노보텔 동기만남 만찬을 시작으로, 5월10일 의과대학과 삼덕동 대학 병원을 방문 하여 졸업 50주년 모교방문행사 와 장학금전달을 하고, 칠곡병원 방문 후, 5월12일까지 2박3일간 여수-순천-거제 남도여행을 통하여 동기들 황혼의 추억 만들기 여행을 하였다.

우리동기는 2017년부터 이동구제안으로 모교방문 준비위원회(박동성, 신홍식, 이동구, 조수호, 최용환내외 10명)를 구성하고 19년 5월 모교방문행사까지 10여 차례 모여서 의논하고 의논된 사항은 그때마다 매달 모이는 대구지역동기회 와 재미동기들에게 e-mail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면서 “우짜든지 동기들을 많이 모아지도록 하자”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준비하였다.

열심히 준비해오신 준비위원 여러분, 동참하신 동기여러분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만찬

19년5월9일(목) 오후 5시 노보텔 엠버서더호텔에서 국내동기; 권광우, 권옥진내외, 김광수, 김종률내외, 문종웅내외, 박기호내외, 박동성내외, 박의현내외, 백인기, 이귀란, 신홍식내외, 우종두내외, 이동구내외, 정성수내외, 조수호내외, 최용환내외, 문원만, 성기태, 황명주, 안영규내외, 오현수내외등 35명, 재미동기; 남신일내외, 서영수내외, 유상박내외, 류성하내외, 이재욱내외, 이정헌내외, 이청혜내외, 정윤기내외, 최봉준내외, 노태영등 19명, 모두 54명이 모여 만찬을 하였고 오랫동안의 만남 인사로 로비부터 시끌벅적 하였다.

만찬행사는 이동구 사회로 동기 현황보고(1969년 78명 졸업, 대구 23명, 경북 8명, 서울 3명, 부산/경남 5명, 재미 18명, 작고 16명, 연락두절 5명) 와 작고동기를 한명 한명 호명하면서 묵념 회상하였다. 이어서 조수호 동기회장의 “지난 50년 열심히 살아온 동기 여러분이 모두 모두 자랑스럽고 졸업 50주년 모교방문행사를 통하여 더 큰 모교 자부심을 갖고, 황혼의 새 추억을 만드는 출발점으로 만들자”는 환영사, 미국동기를 대표하여 이재욱동기 환영사를 듣고, 2부는 “초청성악가 테너 임봉석 소프라노 류지은 의 음악공연” 과 “추억의 앨범 영상쇼(39회 박난규 제작)”를 즐기고, 만찬장에서는 34회 이규청선배(이청혜 남편), 안영규(객지동기 대표)의 건배 제의를 하였고, 만찬 후에는 “권옥진부인 최영숙의 흥겨운 민요공연”이 있었다. 이어서 이동구 사회로 동기 각자가 살아온 지난 세월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지난 50년 세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밤늦게 까지 추억의 회포를 풀었다.

모교 와 삼덕동병원 방문

5월10일(금) 모교 현관 앞에서 학장님, 학교/병원 임원여러분의 큰 환영을 받으면서 입장하여 의과대학 강당에서 37동기 졸업 50주년 모교방문 행사를 시작하였다.

조수호동기회장 모교방문 기념사, 이종명학장 환영사, 강인구 동창회장 축사, 부학장 모교 현황브리핑을 듣고 동기들이 성의로 모은 동창회 장학기금 5,700만원을 학장/동창회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모교장학금에는 고인이 된 박영철동기가 투병중에도 병실에서 특별히 1,000만원을 기탁하여 우리 동기 모두를 숙연하게 하였다. 모교에서는 동기들을 위하여 학장님이 모발 케어 화장품세트, 동창회장이 해아축하 고급 이태리 와인 박스를 선물로 주시어 감사 했고, 이어서 전체 기념촬영 후 행사를 마치고 칠곡병원으로 향하였다. 50년 세월의 흐름은 학장, 동창회장, 병원간부 임원 모두가 “선배님들 우리 모두는 박의현, 이동구, 조수호, 최용환선배님의 제자들입니다” 라는 모교 임원들의 고백이 지난 50년 긴 세월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모교투어는 공포의 해부학교실을 지나 옛 계단교실이 최신 평면교실로 변신한 1학년 강의실, 해부 실습실, 정구장-교정, 병원-의학박물관들을 둘러보면서, 모교 교수님들의 열정, 후배님들의 성실한 모습, 동창여러분의 정성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모교의 크게 발전한 모습은 졸업 50주년 모교방문을 한 우리 동기 모두에게 모교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게 해주시어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칠곡병원 방문

칠곡병원장 손진호교수님과 임원들의 큰 환영을 받으면서 도착한 칠곡병원은 현관에 서부터 잘 정비된 현대적 모습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강당에서 손진호 원장님의 <칠곡병원을 앞으로 700병상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 브리핑을 듣고 나서 조수호 동기회장은 인사말에서 “비록 작은일 조차도 항상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 왔다”는 데레사 수녀님의 노벨상 인터뷰 말씀을 소개하면서 손원장의 700병상 하드웨어 밑 그림에 데레사 수녀님의 큰 사랑을 소프트웨어로 합치면 우리 모교병원은 국내 Big 5 대학병원 범주에 반드시 최 단시간내에 도달 할수 있을것이라는 덕담으로 행사를 마치고 칠곡병원에서 마련한 우리동기들을 위한 화장품 선물을 받아 들고 칠곡병원 투어를 마쳤다.

점심은 수성못밑 바르미 한우센타 2F에서 “언양 바싹불고기+냉면/돌솥밥”으로 식사 (모두들 맛있는 불고기/냉면맛+소주맛을 감사해 주시니 주최측은 고맙고요)후 지리산 노고단 휴게소를 향하여 남도여행을 출발 하였다.

남도여행

여행은 1. 국내동기(권육진내외, 김광수내외, 문종웅내외, 문원만내외, 박기호내외, 박노선내외, 박동성내외, 박의현내외, 백인기, 신홍식내외, 이귀란-박노대, 이동구내외, 안영규내외, 정성수내외, 조수호내외, 최용환내외, 황명주) 32명, 2. 재미동기(노태영, 남신일내외, 서영수내외, 이재욱내외, 이정헌내외, 이청혜내외, 유상박 내외, 류

성하내외, 정윤기내외, 최봉준내외) 19명등 모두 51명이 리무진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출발 하였다.

이번 모임 같이 동기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졸업후 40년 이상 이어온 매달 세번째 월요일 동기회 모임과 모교방문 준비위원들이 2017년부터 10여 차례 모여서 동기들 HP/주소, e-mail을 확인하고 하나 하나 찾아 확인하고 계속 연락해 오면서 적극적으로 준비 해오신 결과로 생각하고 준비위원여러분과 동기여러분께 진정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참여 못하신 동기들은 안타깝고 모교방문행사 동참하신 동기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88고속도로->함안휴게소를 지나서 지리산 노고단 휴게소에 도착하여 지리산-노고단을 보면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구례, 순천을 지나 여수 디 오션리조트호텔에 도착하여 저녁만찬은 밑도 끝도 없이 이어 나오는 해물요리로 유명한 남도한정식(혜원 한정식)에서 소맥을 곁드려 즐거운 저녁식사를 하였고, 박노대, 이규청, 안영규의 건배로 더욱 화기에애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강정자는 산낙지 보양식을 남편 김광수에게 특별히 권하면서 혹시나 여수 막둥이가 생기면 “김여수”로 이름 짓겠다고 하여 한바탕 웃었다.

호텔 체크인후 일부 친구들은 바닷가 산책길에, 37동기 여학생 이귀란 이청혜 부부는 후배 박난규, 서정희를 콜하여 호프집 이차모임을 하였고, 이재욱, 안영규, 황명주, 유성하, 정성수등은 노랫방에서 즐거운 2차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아침은 7시 정각에 모범생 답게 모두들 정시에 모여 아침식사를 하였다.

오동도를 향해가면서 리무진 #2에서는 어제 만찬에서 본 “추억의 앨범 영상쇼”를 다시 한번 더 보자는 재방송 요청에 따라 재방송 감상을 하면서 오동도로 향했다. 리무진 #1에서는 이미 어제 노고단->순천 버스에서 재방송 하였단다.

동백열차를 타고 오동도 분수공원에서 하차, 오동도등대, 해맞이공원, 남근나무, 전망대를 산책 숲속길을 따라 걸었다. 점심은 계장정식으로 하고 이후 여수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여행 출발을 하였다. 제법 큰 배인데 1층은 시끌벅적 노래데크, 우리는 3층 선상에 돛자리 깔고 소주, 음료수를 마시며 지난날 추억, 정담을 나누면서 뱃놀이를 즐기고 황혼의 동기들 새 추억을 만들었다.

수산과학 박물관을 구경하고 박물관 이층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에서 우연히 스케줄에도 없었던 강정자의 건강운동 스트레칭 댄스를 시작으로, 동기들 노래자랑이 시작됐고, 서로 하겠다는 동기들 노래솜씨, 노태영의 춤사위등 아주 즐거운 즉석 여흥시간이 만들어 졌다. 까먹은 노래가사는 스마트 폰이 해결해 줘서 신시대 문명의 혜택을 톡톡히 봤고 너무 너무 즐거운 이번 여행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마무리는 옛 의예과 시절 응원가 그 유명한 <역전서 산격까지~>를 소리 높여 목청 끝까지 불렀다. 50년전 불렀던 잊고 있었던 노래가 누군가 선창을 하니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신기한 경험이였다. 이리하여 동기들의 또 한장의 추억이 만들어졌다.

저녁식사는 여수 최고의 맛집 “여수 이강운 명품선어 횡집 고인돌”에서 홀 전체를 동기들만이 독점하고 만찬행사를 하였다, 특히 받았다는 명품선어에다가 소맥, 동창회장

이 선물해준 이태리 와인을 마시며 밤 늦게까지 끝 모르게 이어졌고 동기들 다수가 케이블카 보다는 노랫 방이 더 좋다는 의견에 따라서 해상 케이블카 관광을 취소하고 최용환 준비위원장의 인솔로 호텔 노랫방으로 직행 늦은 밤까지 모두들 넘치는 흥을 쏟아 냈다.

여행 마지막날 아침, 로비에서 경대의대 졸업 25주년행사로 여행 온 동창후배들의 인사를 받고 반가웠고, 모두들 축하덕담을 나누고 헤어졌다. 순천만 국립공원은 정원 순환열차로 한바퀴 돌아보고 나서 개별 산책시간을 가졌다. 점심은 태백산맥에서 모든 상차림이 꼬막으로 이뤄진 남도 태백산맥 “꼬막정식”을 먹었고 엄청 남은 꼬막은 포장해가져 올 정도로 푸짐하였다.

거가대교, 거가터널을 지나면서 리무진#1 에서는 노랫방, 리무진#2 에서는 미국동기 미국이야기(2세 이야기, 3세 손자/손녀 이야기, 가정생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땅에서 살아온 동기들의 지난 세월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수 있었다.

특히 70년대 모국을 떠나서 살아온 재미 동기들은 몰라보게 변한 고향의 모습에 더욱 놀라워 했고 돌아오는 버스에서는 헤어질 시각이 다가옴을 못내 아쉬워 했다.

신 부산대구고속도로를 거쳐 대구에 도착하여 성암산 가마솥 국밥집에서 동기회장은 마무리 인사로 “국내외 동기들의 많은 참여와 무사히 행사를 마친 것을 감사하고, 행사기간 동안 맑은 하늘, 화창한 날씨가 큰 부조가 됐다는 감사 이야기, 준비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하고, 국내외 동기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빈다”는 인사 말을 끝으로 해단식을 하였다. 동기회장으로 동기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 합니다.

(재미 이재욱,정윤기,유상박,최봉준,유성하,노태영동기들이 보내준 메모자료들을 참고/추가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욱 재미동기 준비위원

모교 졸업 50 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할수 있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거의 일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2019년 5월9일 목요일 오후 6시. 노보텔 호텔 8 층. 만찬을 시작으로 3 박 4일의 행사가 시작.

동기,부인 모두 54 명이 참석 하신걸로 기억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의 흥분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습니다.

등록과 개별 촬영이 있은후 행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동구 동기의 사회로 국기에 대한 경례, 동기 현황보고,작고한 동기들을 위한 묵념 [16 명], 동기회장 조수호, 재미동기대표 이재욱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테너, 임봉석, 소프라노, 류지은의 아름다문 음악, 최영숙 여사[동기 권옥진 부인] 의 민요가 있었습니다.

정성수동기[시인] 의 시 낭독 이 있었습니다.

박난규여사[조수호 부인] 께서 준비하신 추억의 앨범 영상 쇼 를 보았습니다.

동기개인별 지난날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 우리모교, 대학교병원, 칠곡 대학교병원의 발전, 우리 37 회 동기들 및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이규청 선배님(이청혜 남편)과 안영규 동기의 건배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금요일 5월 10일 아침 대형버스 2대로 호텔을 떠나 모교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의과대학 강당에서 간단한 환영식과 장학금 전달이 있었고 대학을 둘러보고 난후 정문에서 단체 사진 촬영후

칠곡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주 넓적하고 최신 시설로 잘 차려진 칠곡 대학교 병원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수성못 근처에 있는 바르미 한우 센터 2층에서 진수성찬으로 마련한 불고기와 냉면으로 마련한 점심을 먹고

전라남도 여수로 51명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수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해원에서 남도 한정식으로 먹었고 여수 디오션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헤어지기 섭섭하여 디오션 리조트에 있는 가라오케방을 방문하여 정성수, 안영규, 황명주, 유성하, 이재욱 이

흘러간 옛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래 실력들이 대단하여 100점 만점이 여러번 나왔고

다음날 아침 5월 11일 토요일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한후 여수 관광에 나섰습니다
점심은 계장 정식, 석식은 명품선어로 진수성찬을 즐겼다.

호텔로 돌아아서 이날밤도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여 가라오케를 즐겼고

다음날 아침 조식후 순천만으로 이동. 순천 세계정원 박람회 공원 관광을 했습니다
여러나라별로 특징있게 만들어서 정말 아름다웠고. 꼬막정식으로 점심을 먹고
거가대교를 거쳐 대구로 출발.거가 대교의 웅장함과 기술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11위 대한민국 화이팅!!!

대구 도착후 월드컵 축구장 근처에 있는 성암산 국밥집에서 따로 국밥을 저녁으로 먹
은후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다음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대부분 하차, 마지막 그룹은 노보텔 호텔에서 해산.

모두들 건강하게 여행을 마칠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나나?

비공식적으로 2년후에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사를 위해 준비와 계획을 한 동기회장 조수호, 준비위원장 최용환, 준
비위원 이동구.

신홍식, 박동성 동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만날때까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안녕 !

3.7동기회 졸업 50주년기념 상봉기

문 종 응(37회)

< 여는 글 >

우리 동기는 1969, 2.25, 78명이 졸업하여 56명은 국내, 22명은 미국으로 나뉘어서 그 당시로는 귀한 의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온갖 고생과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늘에 이르러 모두 비교적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만년을 즐기고 있다. 졸업 후 50주년이 되는 현재 상황은 국내 39명, 미국 18명, 연락두절 5명, 작고 16명으로 대구에 있는 동기들은 오랜 세월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애락(哀樂)을 나누고 있으나 타 지역이나 미국에 있는 일부 동기들은 자주 접하지 못하고 심지어 졸업 후 한번도 못 보거나 연락이 두절된 동기도 있으니 안타깝다. 이번 모임에 참가한 동기들의 현황을 들어 보니 미국 동기 10명 중 9명이 은퇴하고 1명은 곧 은퇴할 예정이며 국내 동기 21명 중 2명을 제외한 모두가 현역 생활을 하고 있어서 대조를 이루었는데 아마도 은퇴 후 보장제도가 미국에서는 잘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 전야제, 모교방문 >

그동안 대구 동기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 50주년처럼 국내외 동기들이 단체로 많이 모이기는 졸업 25주년 행사 이후 아주 오랜만이다. 이번 행사는 5월9일 노보텔호텔에서 열린 전야제로 시작되었는데 모두 57명(회원31명, 짝26명)이 참석하였다. 이동구의 매끄러운 사회로 시작한 1부는 국민의례와 작고동기에 대한 추모묵념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시간 오늘의 만찬에 참석하지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리운 동기들 생각이 많이 났다. 2부에서는 이름난 테너 임봉석과 소프라노 류지은부부의 열창으로 “조두남의 뱃노래”등 4곡과 특별 출연한 최영숙(권옥진짜)씨의 민요“창부타령, 밀양아리랑”을 감상하였는데 아마도 세 분 모두 자기 분야에선 놀라운 경지에 들어선 것 같았다. 곧 이어서 박난규(조수호짜)씨가 세심하게 편집한 “추억의 앨범 영상쇼”를 관람하였는데 출판작중 국내 동기들의 것은 단체여행 때의 스냅사진이 많아서 옛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났고 미국 동기들의 것은 주로 가족사진이 많았는데 사진에서나마 미국 동기들의 온 가족들을 다 상봉할 수 있어서 반가웠다.

5월10일, 둘째 날은 아침 일찍 다시 노보텔에 51명(회원 27명, 짝 24명)이 모여 2대의 26인승 리무진버스에 한국, 미국 동기 반반씩 섞어서 나누어 타고 먼저 모교 강당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하여 이종명학장님, 강인구동창회장님의 환영을 받고 현황을 설명 들었는데 금년 87회 졸업생까지 모두 8700명의 동창들을 배출하였고 병원의 병상수는 본원(965), 칠곡병원(652), 증축중인 칠곡병원(700)을 모두 합하면 2300병상이 되어 향후 국내 “5대 메머드병원”에 진입한다고 하니 가슴이 뿌듯하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회원들이 정성껏 모은 기금(57,000,000원)을 전달하였는데 이 중에는 고 박영철회원의 유지를 받들어 유가족이 희사한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가슴이 뭉클하였다. 이어서 1학년 교실을 둘러보니 당시의 계단식 교실이 평면으로 바뀌어 전통이 사라지고 고전적인 맛이 없어져 다소 섭섭한 느낌이 들었고 또 사체해부실습실에서는 마침 후배들이 실습 중이어서 우리들도 현장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때와 달리 청색 새 수술복을 입고 실습을 하고 있어서 청결하고 보기가 좋았고 실습실 입구에는 “조문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그 다음 병원으로 옮겨 문화재 442호로 지정된 본관 2층에 자리한 의학박물관을 관람하였는데 많은 소장품들 중에는 그 당시 우리들도 사용했음직한 기구도 보여 감회가 깊었고 특히 진열된 서적 중에는 시집“병동(病棟)”이 여러 권 진열되어 있었는데 이 시집은 “의대작품클럽”에서 매년 시화전과 함께 발행한 시집이었고 그 중 제1,2,3권은 당시 나(문종웅)와 이길로, 신기동등이 편집을 맡아 만들었고 나의 작품도 5수가 실려 있어서 무척 반가워서 나의 짝에게 자랑했다. “의대작품클럽”은 문종웅, 이길로, 윤성도후배, 조석재, 노여주선배, 구명화간호사등 15여명이 김춘수시인, 주영은교수님을 모시고 1966년에 만들었는데 그 후 회원 수가 많이 늘었고 본회 출신 다수가 시인으로 등단하였다. 본원 방문을 마치고 바로 현대식 칠곡경대병원으로 이동하여 손진호원장님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깨끗한 병원을 한 바퀴 돌아보고 관계인들의 전송을 받으며 모교 방문 일정을 모두 끝냈다.



< 단합여행 >

이어서 중식을 마치고 신희원(최용환씨)씨가 회원들에게 선물한 고급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광주-대구고속도로로 남원IC를 나와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 주차장에서 잠시 내려 전경을 감상하고 바람도 쐬고 옛날 영.호남의 물물교환 장소였던 화개장터를 거

쳐 여수에 19시경 도착하여 해원식당이란 곳에서 대구에서는 맛보기 힘든 “계장정식”을 맛보았다. 본래 음식하면 전라도라, 예로부터 전라도는 평야가 넓고 기름져 농수산물에 풍부하여 먹거리문화가 발달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 먹어보니 양, 질, 맛이 대단하여 골고루 다 맛보다 보니 배둘래가 허리띠 구멍으로 1-2구멍은 커진 듯하다. 이런 상황은 여행이 끝날 때까지 한정식, 회집, 꼬막식당 등 가는 식당마다 다 그랬다.

21시에 디오션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바로 골아 떨어졌다. 아침에 일어나 전경을 둘러보니 이 호텔은 시내에서 다소 떨어진 조용한 바닷가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호텔과 리조트 복합단지라 지은 지 오래지 않아 깨끗하였고 아침 햇살이 일렁이는 바다물결에 반사되어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고 멀리 산들과 수평선, 점점이 박혀 있는 집들이 물안개에 싸여 희미한 윤곽을 들어내는 멋진 풍광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와도 좋을 곳으로 추천하고 싶다.

5월 11일, 첫 관광은 오동도! 오동도란 이름은 섬모양이 오동잎같이 생긴 데다 옛날에는 오동나무가 밀식하여 부쳤다고 하나 전설에 의하면 신돈(辛旽)스님이 기울어져가는 고려 말에 새 임금이 전라도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오동열매를 먹고사는 봉황새가 이 섬으로 날아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오동나무를 모두 베어버렸다고 하며 지금은 3천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그 자리를 무성하게 채워져 있었다. 동백꽃은 이름처럼 겨울 꽃이어서 지금은 다 지고 없어 아쉬웠으나 대신에 암녹색의 무성한 밀림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었다. 오동도는 768m의 방파제로 육지의 세계박람회장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 일행 대부분은 방파제 위로 다니는 “동백열차”를 타고 입도(入島)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동백숲터널을 걸어 등대, 해돋이전망대, 바람골, 용굴을 관광하면서 몸과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고 나올 때는 방파제를 따라 바다위에 설치된 “산책다리”를 걸어 출도(出島) 하여 박람회장 입구 식당에서 계장에 밥 비벼 맛있게 먹었다.

오후에는 유람선을 탔는데 이 유람선이 좀 문제였다. 유람선이면 시원한 갑판이나 선실 자리 좋은 곳에서 바닷바람에 머리칼 휘날리며 로맨틱한 분위기로 경치를 감상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3층 중 1,2층은 선상카바레로 꾸며져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아마추어 가수의 노래에 맞춰 술 먹고 합창하고 흔들고 떠들고 난리였다. 할 수 없이 우리 일행 대부분은 3층 맨 갑판의 포장 밑에 모여 햇볕을 피해 가며 돌산,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대형선박수리도크, 오동도를 돌아 여수산단에 용무차 점점이 떠서 대기 중인 대형 선박들과 바다에서 보는 여수 풍경을 감상하고 하선하였다.

하선 후 다음 관광 코스는 국보 304호 진남관으로, 진남관은 조선시대 전라 좌수영 객사로 현존하는 국내 최대 단층 목조 건물로 임란 때는 삼도수군통제영으로 사용된 수군의 중심 기지였는데 마침 수리중이라 못보고 입구에 있는 전시실만 보고 돌아서서 많이 아쉬웠으나 다음 관광지인 해양박물관에서 갑오징어 구경하고 2층 베란다를 무대로 삼아 즉석에서 서정희(박의현짜)씨가 “진달래꽃, 사공의 노래”를 열창하여 많

은 박수를 받았고 또 한편에서는 강정자(김광수작)씨의 요가교실이 열려 흥을 돋우었다. 곧이어 “TV 맛 자랑”에 나온 이강운명품선어회집으로 자리를 옮겨 동창회장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값비싼 와인을 반주 삼아 곱판지게 잔치를 벌여 3시간여 동안 흥겨워 지난날의 기억과 재미있는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하다 보니 케이블카 타고 여수야경 감상 하는 스케줄이 핑크가 났다. 사실 나는 3년전 이 코스를 여행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본 여수야경과 공원에 설치한 “루미나리에”가 너무 환상적이어서 이번에 꼭 한번 다시 보고 싶었는데 많이 아쉬웠다.



5월 12일, 마지막 날은 순천만 일대를 돌아보고 귀구(歸邱)하는 날이다. 순천만 습지는 “세계 5대 연안습지”이며 이 귀한 습지를 항구적으로 보존키 위해 정원으로 조성하여 2013년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열었고 그 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 지금은 우리나라 정원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한다. 34만 평의 광활한 이곳은 13개 세계정원, 14개 테마공원, 28개 참여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 모두를 주어진 90분에 보기에는 턱도 없어 “관람차”를 타고 2.7km 구간을 30분만에 주마간산격으로 돌아보고 나머지 자유시간은 각자 보고 싶은 곳을 골라 보았는데 나는 실내공원, 세계문화폴리마켓, 나지막한 동산등을 산책하였다. 이곳도 공원 조성 후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구경 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초목이 많이 무성해 졌고 꾸밈새가 훨씬 볼만하였다.

중식으로 별미음식 "별교꼬막정식"으로 든든히 먹고 귀가 리무진에 올랐는데 다소 돌아가더라도 거가대교가 초행길인 회원이 많아 이 유명한 다리를 거쳐 가기로 하였다. 이 다리는 거제 장목과 부산 가덕도 사이의 외해(外海)를 잇는 8,2km의 길이로 "세계5대신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가장 비싼 유료도로 이름이 높다. 귀가 길은 의자 제쳐 fowler position으로 느긋하게 누워 오는데 내가 탄 1호차의 경우 여행 중 내내 반장역을 맡은 박동성이 차내(車內) 노래방을 개설하여 흥을 돋우었는데 몸은 좀 늙었지만 성대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모두들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이청혜 목소리는 학생 때보다 더 꾀꼬리 같고, 최봉준과 노태영도 한가락 하였으며 정윤기, 이재욱은 예나 지금이나 잘 불렀다. 이 와중에 어느덧 대구 성암산국밥집에 도착하여 마지막 한끼 때우고 섭섭하지만 어찌겠나! 다음을 기약하며 해산하였다

< 마치는 글 >

이번 여행길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만만찮은 일정을 끝까지 함께하신 박노대(이귀란짱)선배님, 멀어도 멀다않고 사랑하는 짝(이청혜)을 수행하여 외조하신 이규청선배님, 본 행사를 위해 1년 전부터 시간을 할애하여 수고하신 준비위원들, 그리고 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모든 회원들과 짝꿍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 처음으로 10년 선배님들이 졸업60주년 상봉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10년 후 우리는 몇 사람이나 남아 다시 얼굴 볼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날도 자꾸 줄어드는데 하루하루를 아껴가면서 알차게 살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길 빈다.